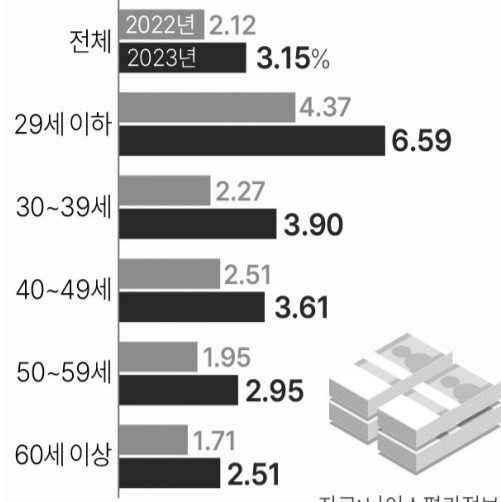


자영업자 '못 값은 대출' 27조... 20대 연체율 1위

연령대별 개인사업자 다중채무자 연체율

12월 말 기준



자료: 나이스평가정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연말뉴스

지난해말 대출 1109조원...1년새 연체 50%·연체율 2.47%로 올라 대출자 50%는 '다중채무'...연체율 3.15%·30대 증가율 63% 급증

코로나19와 경기 부진을 대출로 버티던 자영업자들이 고금리 등으로 한계에 이르면서 이들이 갚지 못하는 대출 규모가 1년 새 50% 이상 불었다. 특히 사업 경험이나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20~30대 젊은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이 가장 빨리 뛰고 있다.

4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 평가정보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 가계·기업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335만8499명의 개인사업자는 모두 1109조6658억원의 금융기관 대출(가계대출+기업대출)을 안고 있었다. 2022년 말(327만3648명·1082조6258억원)과

비교해 1년 사이 대출자가 8만4851명(2.6%), 대출잔액은 27조400억원(2.5%) 더 늘었다. 더구나 같은 기간 이들의 연체금액(3개월이상 연체 기준)은 18조2941억원에서 27조3833억원으로 9조892억원(49.7%)이나 급증했고, 평균 연체율도 1.69%에서 2.47%로 약 0.8%p포인트(p) 뛰었다.

나이스평가정보는 국내 수위의 신용평가기관으로, 주요 시중은행을 비롯한 대다수의 금융기관이 대출자의 동의 아래 이 업체에 대출자의 금융정보를 제공하거나 반대로 기업·개인의 대출·연체 이력 등을 받아 신용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나이스평가정보의 통계에 실제 대출 현황이 대부분 반영된다는 게 금융권의 설명이다.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최대한 빌려 추가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상황은 1년간 더 나빠졌다.

전체 다중채무 개인사업자(자영업자)는 현재 173만1283명으로, 전체 개인사업 대출자(335만8499명) 가운데 절반 이상(51.5%)을 차지했다. 이들의 대출잔액은 691조6232억원에 이르렀다.

다중채무 인원과 대출 규모가 1년 전(168만1164명·675조3047억원)보다 5만119명(3.0%), 16조3185억원(2.4%) 불었다.

이들의 연체가 늘어나는 속도는 더 빨랐다. 다중채무 개인사업자의 연체액(21조7955억원)은 2022년 말(14조2950억원)보다 7조5005억원(52.5%) 증가했고, 평균 연체율도 2.12%에서 3.15%로 1.03%p 높아졌다.

특히 20~30대 젊은 자영업자들의 처지가 가장 어려웠다.

다중채무 개인사업자의 작년 연체액 증가율을 연

령별로 보면, 30대(30~39세)가 62.5%(1조7039억원→2조7691억원)로 가장 높았다.

이어 ▲60세 이상 58.0%(2조8989억원→4조5800억원) ▲50~59세 56.0%(4조4550억원→6조9491억원) ▲40~49세 43.7%(4조8811억원→7조127억원) ▲29세 이하 36.1%(3561억원→4846억원) 순이었다.

연체율은 29세 이하(6.59%)에서 최고였고, 30대가 3.90%로 두 번째였다. 40대(3.61%)·50대(2.95%)·60세 이상(2.51%)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연체율은 낮아졌다.

영업 규모나 자산 등의 측면에서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20~30세대 젊은 자영업자들이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년 사이 연체율 상승 폭도 29세 이하(2.22%p)와 30대(1.63%p)가 나란히 1·2위를 차지했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연합뉴스

동곡농협, 농촌인력증개센터 개소...농번기 인력난 해소 나서

내·외국인 인력 증개
농협, 운영비 등 지원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이현호)는 4일 동곡농협(조합장 이동운)이 광산구 하산동 영농자재판매장에서 2024년 농촌인력증개센터 발대식을 갖고 '농촌인력증개센터 운영지원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진〉 농촌인력증개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농협에서 농촌과 도시의 근로 인력을 모집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내·외국인 인력을 증개하는 사업이다. 농협은 센터운영비, 현장교육 실습비, 교통비, 숙박비, 영농작업반장 수당 등을 지원한다. 올해 농촌인력증개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신규 선정된 동곡농협은 예산 7000만원(국비50%·지방비50%)을 확보했다.



이 날 발대식에는 이현호 본부장, 이동운 조합장과 영농작업반장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담당 지역 할당과 모집 및 운용 방안을 논의하며 농번기철 부족한 일손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인력증개를 다짐했다.

이동운 조합장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문제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며 "농촌인력증개센터를 통해 일손부족 농가에 인력을 적기에 지원하고, 균형있는 농촌인력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농촌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은행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로 워라밸 앞장

5월 31일까지
7년째 시행 중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신학기를 맞아 오는 5월 31일까지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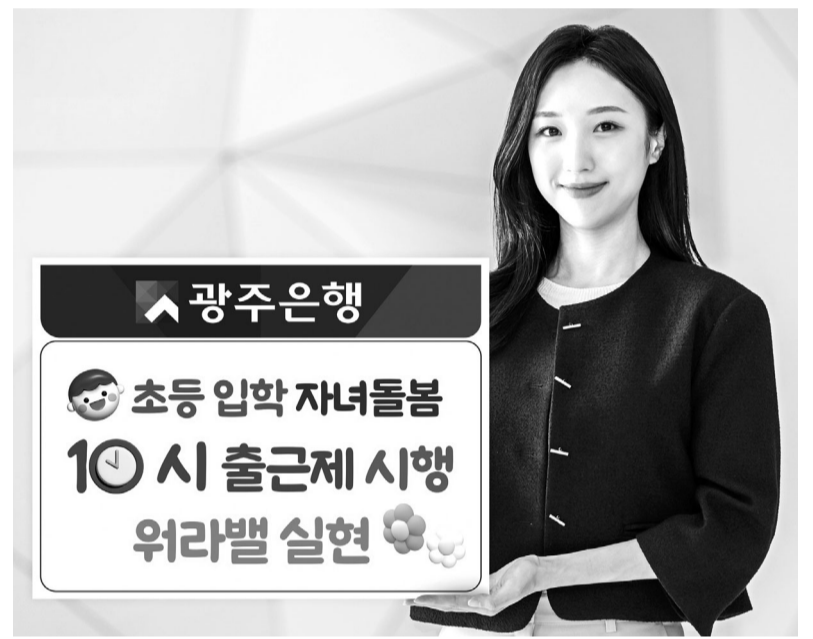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는 신학기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임직원들의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로 늦추는 제도다.

직원들은 3~5월 중 두 달을 선택해 10시 출근제를 사용할 수 있고, 단축되는 근로시간으로 인한 임금 및 승진 등의 불이익은 없다.

광주은행은 직원들의 높은 참여율과 저출산 시대에 알맞은 복지제도로 자리잡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날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를 첫 사용한 직원은 "출근시간과 등교시간이 겹쳐 걱정이 많았다"며 "해당 제도 덕에 아이를 안전하게 학교 앞까지 바래다 줄 수 있어 걱정이 반으로 줄었다"고 전했다.

고병일 광주은행 은행장은 "저출산 시대에 육아



는 부모뿐만 아니라 국가·기업·사회가 함께 도와야 하는 과제로 인식하고,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며 "이같은 제도를 통해 진정한 워라벨이 정착되는 등 긍정적인 기업문화가 지역사회에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은행은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를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대상 직원 93명을 포함해 총 623명의 직원들이 이 제도를 이용한 바 있다.

/장윤영 기자 zzzang@kwangju.co.kr

광주국세청, 납세자의 날 행사...모범납세자 표창장 시상

산업포장·대통령 표창 등 72명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양동구)은 4일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성실납세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크게 기여한 모범납세자와 국세행정 운영에 적극 협력한 세정협조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주식회사 삼우에코, 주식회사 만나가 산업포장, 해남뷰티스피부과의원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동호레저주식회사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이밖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13명, 국세청장 표창 15명, 광주지방국세청장 표창 17명, 세무서장 표창 23명 등 총 72명의 모범납세자에게 지방청과 세무서에서 표창장이 수여됐다.

양동구 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납세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국민과 수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광



주국세청은 납세편의와 민생경제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공정한 세정집행을 통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013.25 (+42.23)	↑ 금리(국고채 3년)	2.018 (+0.052)
↓ 코스닥	1032.31 (-9.61)	↓ 환율(USD)	1185.10 (-0.20)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

보험사기 ZERO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합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